

낚시 천국 안도

낚시에 빠져봐~

200억 투입 낚시관광형 다기능 어항 개발  
레저센터·낚시관광시설·공연장 등 조성  
명품마을 '동고지' 해돋이 전망대 설치키로



금오도와 다리로 연결된 안도

트레킹 천국 금오도

절경에 빠져봐~

거센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낸 비경 가득  
총길이 18.5km 비령길 해안 경관 감탄 절로  
출렁다리·동백나무 군락 등 볼거리 즐비



비령길 3코스 매봉 전망대

체류형 섬 관광의 백미  
금오열도

자연이 빚어낸 천연의 비경(秘景)을 간직한 365개의 섬은 '국제 해양관광 중심도시' 여수의 가장 큰 자원이자, 해양을 주제로 했던 여수 세계박람회와 성공으로 여수의 해양 관광자원이 더욱 관심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가장 떠오르고 있는 섬이 금오열도(金鰲列島)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한 금오도 등 37개의 섬으로 이뤄진 금오 열도는 수천 년 동안 거센 파도와 바람이 만들어 낸 신비한 절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새롭게 주목받는 안도=금오 열도에서 가장 큰 섬은 금오도다. 또 금오도 동남쪽에는 아늑한 해수욕장을 품은 섬 안도(安島)가 있다. 안도는 '남해안의 제주도'로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특히 최근 안도항이 낚시관광형 다기능 어항으로 본격 개발된다. 여수시는 지난 4월 안도를 사계절 체류형 생태휴양 관광지로 본격 개발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다기능어항 공모사업에 참여해 지난 7월 말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가 미래 청사진으로 그려 온 '체류형 생태휴양 섬 관광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해양자원이 풍부한 바다목장의 중심지 안도항 일대는 해양 오염원이 원천 차단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안도와 이웃한 '금오도 비령길'에는 해마다 5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다. 하지만 머물수 있는 관광시설·프로그램이 부족해 체류형 관광객 수요는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했다. 이에 여수시는 이번 다기능 어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 뒤 2016년부터 3년에 걸쳐 국비 200억원을 투입, 안도 서고지 항을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물양장과 낚시어선, 부잔교 등 기반시설을 비롯해 레저센터, 낚시 휴게소, 산책로 등 낚시관광 시설과 야외공연장, 인도교, 야영장 등 문화시설 등을 조성한다. 또 'U-피싱 파크'(Fishing Park)를 도입해 안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최고치로 높일 계획이다. U-피싱 파크는 첨단 IT 정보기술을 접목해 해양레저 관리체계를 하나로 융합한 선진국형 낚시(釣) 관리시스템이다. 여수시는 또 육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주말농장을 바다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바다목장은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는 동호인을 중심으로 전북 등 해양자원을 육성해 마을 어촌계와 소득을 분배·재투자하게 된다. 최근 '국립공원 명품마을'로 선정된 안도 동고지 마

을 개발도 한창이다. 여수시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2017년까지 9억 8000여만원을 투입해 ▲마을 안길과 지붕 개량 등 마을환경 개선사업 ▲어가식당, 민박 리모델링 등 마을 소득 기반 조성사업 ▲안도해변~동고지 간 산책로 및 해돋이 전망대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금오도 관광 명소화도 '박차'=그동안 안도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배편을 이용해 금오도에 도착한 후 차량이나 걸어서 이동해야 했다. 안도와 1.7km 길이 안도대교로 연결돼 있는 금오도는 해마다 비령길 탐방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전국 대표 명품 섬 관광지다. 이 때문에 금오도와 안도를 연계한 관광명소화 작업도 활발하다. 울창한 숲과 바위 절벽으로 둘러싸인 해안경관이 빼어난 금오도에는 지난 2010년부터 여수시가 비령길이라는 이름의 트레킹 코스를 본격 조성했다. 총길이 18.5km에 이르는 이 코스 주변에는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해안 경관은 단연 으뜸이다. 맑은 날 미역 낚시를 서면 맞으면 나로도 우주선 발사대도 보일 정도다. 여수시가 8억원을 투입해 지난달 4일 완공한 출렁다리로 다리 바닥을 강화유리로 시공해 아찔한 비령의 절경을 체험할 수 있다. 비령길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명품인 동백나무 군락은 거대한 규모만큼 숲에 들어서면 백백한 동백나무에 가려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다. 이처럼 매년 수십만의 관광객이 찾을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금오도 비령길'과 안도항의 '낚시관광형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명실상부한 해양관광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노철 여수시 해양관광수산국장은 "민선 6기 출범 후 이뤄진 첫 대단위 국비사업인 안도 다기능 어항 개발 사업 등은 '사계절 체류형 생태 관광 활성화'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남해 크루즈급 여객선 운항 중단 1년만에 내일 재취항

여수시 엑스포연안 여객선부두와 경남 남해군 서상항을 오가는 크루즈급 여객선이 운항 중단 1년여 만에 재취항한다. ㈜신아해운은 20일 오후 3시 여수·남해 지역 기관 단체장과 지역주민이 참가한 가운데 여수 해양 엑스포장 내 엑스포 연안 여객선 부두에서 취항식을 갖는다. 이번엔 취항하는 '한려 크루즈호'(사진)는 379t에 승객정원 300명으로, 강화된 안전기준을 통과한 최신식 여객선이다. 각종 공연과 해산물 뷔페, 선상 결혼식과 파티, 모임을 할 수 있고 최고급 프로젝터와 음향설비를 갖춰 연수회나 워크숍을 할 수도 있다. '한려 크루즈호'는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뱃길인 '여수~남해' 항로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 회사 측은 남해군과 연계해 남해 시티투어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아해운 관계자는 "다른 지역 이용객들에게 엑스포 부두와 근접해 있는 여수 엑스포장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수와 남해를 오가며 동서화합의 가교(架橋)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주말에 만나는 섬마을 사람들' 체험 다음달엔 개도·여자도서 1박2일

여수지역 섬문화와 다양한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 '주말에 만나는 섬마을 사람들' 체험단이 여수시 화정면 개도(開島)와 여자도(汝女島)를 찾아 떠난다. 여수시와 (사)여수 지역사회연구소는 공동으로 여수 지역의 3개 섬을 탐방하는 '주말에 만나는 섬마을 사람들'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거문도를 다녀온 데 이어 다음달에는 개도와 여자도를 대상으로 각 섬의 특징을 살린 1박 2일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자 30여명을 공개 모집했다. 거문도 행사 참여자들은 전통 떼배 체험, 거문도·백도 은빛바다축제 참가, 활어 맨손잡기 체험, 거문도 해안절경 투어 등 현지 주민과 함께 참여해 아름답고 다양한 섬문화를 체험했다. 특히 올해는 여름축제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14회 거문도·백도 은빛바다축제와 함께해 체험행사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만날 수 있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섬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다양한 문화와 체험거리 등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 행사로 개발하는 데 주력했다"며 "행사 이후에도 상설화된 여행상품으로 발전시켜 여수 섬 관광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오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원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철	673-1600
진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